

신임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씨 임명

- 국악·방송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악방송의 혁신 이끌 것으로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8월 6일(목)자로 국악방송 사장에 김은하 국악방송 방송본부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은하 신임 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국악방송에 입사, 라디오제작부와 광주국악방송 및 국악방송 심의 감사실 등을 거치면서 국악·방송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국악방송 방송본부장 및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하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2001년 개국한 국악방송은 서울의 본사 이외에 광주·대전에 지역방송국을 두고 있으며,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김은하 신임 사장은 그간 방송 현장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국악방송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신임 사장 주요 약력

따로 붙임 임명장 수여 사진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강은영 (044-203-2731)
		담당자	연구관	문주석 (044-203-2734)

	성 명	김 은 하
	출 생	1967년생
	현 직	국악방송 방송본부장
	성 별	여
학 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94) 이화여자대학교 국악과 학사('90) 국립국악고등학교 졸업('86)	
주요 경력	국악방송 사장 직무대행('25~) 국악방송 방송본부장('24~)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 겸임교수('23~) 국악방송 라디오제작부장('23) 국악방송 심의감사실 부원('22) 국악방송 라디오제작부 방송위원('21) 광주국악방송 국장(파견근무)('16~'17) 국악방송 라디오제작부 차장('07) 국악방송 입사('00)	